

# 생활방역 수칙 지키며 문화 나들이...큰 혼란 없었다

## '생활속 거리두기' 첫날 보니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첫날인 6일 대다수 시민들이 비교적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등 큰 혼란없는 하루를 보냈다.

광주일보가 도심 곳곳을 취재한 결과, 외출을 나선 시민 10명 가운데 3-4명 정도가 마스크를 쓰지 않아 지난달에 비해 방역에 대한 경계심이 약간은 풀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층이었으며, 노인들은 거의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다. 또한 버스정류장과 지하철 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대다수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지키는 등 생활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심 상가는 물론 아파트단지 상가 등

박물관·문화전당 모처럼 발걸

시간당 인원 제한 차분한 관람

상가도 손님들 조금씩 늘어나

국립공원 야영장 잇단 예약 문의

외출 시민 일부 마스크 안써

코로나 경계심 다소 풀어진 듯

자영업자들은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된 만큼 그동안 외식이나 외출을 자제했던 손님들이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많이 찾아와주길 바라는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충장로에서 20년간 꽃집을 운영중인 A(54)씨는 가정의 달인 5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A씨는 "영업을 시작한 이래 최악의 상반기를 보내고 있지만, 코로나가 한풀 꺾여 손님들이 조금씩 늘는 추세

라며 "오는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에 꽃을 찾는 손님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께 중단됐던 노인일자리도 대부분 재개되면서 그간 집안에만 머물렀던 노인들도 기지개를 펴게 됐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예정됐던 노인일자리 2만 5468개 가운데 2만 4012개(94.3%)가 재개됐다. 일부 대면 일자리는 비대면 방식으로 바뀌어 실시된다. 독거노인을 찾아 안부를 묻는 노노(老老)케어 서비스는 방역, 환경미화 업무로 대체됐다. 복지시설이 문을 여는 대로 시설 내 청소와 식사를 돕는 노인 일자리도 다시 운영될 예정이다.

지하철 역사에서 탑승객 안내를 돕는 메트로실버도우미 박모 할아버지는 "지난 몇달 간 집에만 갇혀있었는데, 일이 다시 시작된다는 얘길 듣고 산이 나 자식들에

게도 전화를 걸어 알렸다"고 말했다.

국립공원 야영장 운영도 재개되면서 시민들의 예약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팔영산 자동차 야영지는 오는 8일 재개장 후 첫 예약이 접수됐다.

국립광주박물관을 비롯한 아시아문화전당, 나주박물관 등 지역 문화예술기관들도 이날부터 제한적으로 문을 열면서 문화 활동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문화기관들은 사전 예약, 탄력적 운영, 거리두기 객석제 등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했다.

국립광주박물관은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한다는 전제 아래 단계적 운영을 재개했다. 우선 문을 여는 시설은 전시관과 정원으로, 어린이 박물관은 감염에 취약한 점을 고려해 오는 18일부터 부분

적으로 개관한다.

전시관과 박물관은 누리집 사전 예약 관람제로 운영하며, 전시관은 감염 예방을 위해 시간당 인원을 100명으로 제한한다. 어린이박물관은 시간당 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3회 이상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아시아문화전당도 차분한 분위기 가운데 전당을 찾은 소규모 관람객으로 모처럼 활기가 돌았다. 오후 들어 시민 품으로 다시 다가온 ACC의 이곳 저곳을 둘러보려는 이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향후 펼쳐질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을 읽을 수 있었다. 문화전당은 실내 시설 관람의 경우 개인만 허용하며, 창조원 전시실과 어린이문화원 유아놀이터 등은 시간대별로 적정 인원을 제한할 방침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무심코 친구에 건넨 엄마 차 키 때문에...

### 차 키만 준 여중생은 혐의 없음 운전·동승 친구 특수절도까지

친구 엄마 차를 타고 서울 등을 돌아다니던 10대 중학생 4명이 교통사고까지 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여중생이 대수롭지 않게 또래 친구에게 건넨 엄마 차 키 때문에 친구들은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됐다. 하지만 엄마 차를 타고 다닌 여중생은 운전도 하지 않은데다, '친족상도례'에 따라 다른 친구들과 달리 특수절도 혐의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친족상도례란 4촌 이내 가족이 절도·사기 등 재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고소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하는 제도다.

광주경찰청에서는 6일 무면허로 공항에 주차된 친구 어머니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로 A(14)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일 밤 11시 20분께 광주시 광산구 신촌동 광주공항에서 면허도 없이 친구 어머니가 출장을 가면서 주차해 놓은 차를 가지고 나와 친구들과 함께 서울 등을 돌아다니다 경기도 북오산 IC 인근 도로에서 교통사고까지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친구 B양에게 어머니 차 비상키를 건넬때만 뒤 공항부터 차를 몰았으며 도중에 합류한 C군과 교대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여수, 순천을 들린 뒤 서울의 한 놀이공원에 방문하고 광주로 돌아오던 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차량이 없어진 사실을 안 B양 어머니 신고로 하이패스 기록 등을 분석해 고속도로순찰대 협조를 받아 B양 등을 붙잡았다. 경찰은 A군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는 한편, 함께 운전했던 C군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엄마 차 키를 건넨 B양과 함께 공항터 차량에 타고 돌아다녔던 D양도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되지만 B양은 적용할 혐의가 없어 무혐의 처분한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의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받아 특수절도 혐의가 면제되고 공항에서 함께 있던 두 남여 중 학생들은 특수절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6일 석달여 만에 문을 연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어린이문화원 유아 놀이터를 찾은 어린이들이 마스크를 쓴 채 시설을 체험하고 있다. (ACC 제공)



국립광주박물관 캐릭터 '광박이'와 이수민 박물관장(오른쪽)이 6일 관람객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국립광주박물관 제공)

## "염주주공 정비조합, 용역업체에 2억 쥐라"

### 손배소송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염주주공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염주주공 정비조합)이 정비사업 용역업체에게 2억2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양측이 1심 판단에 불복, 항소하면서 최종 판단은 남아있지만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자칫 조합원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광주지법 민사 13부(부장판사 송인경)는 재건축업무 용역업체인 A업체 등 2곳이 염주주공 정비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지급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염주주공 정비조합은 총 용역대금 40억 6600여만원의 5%인 2억2300여만원을 A업체 등에게 지급하라는 게 재판부 판단

이다.

A업체 등은 염주주공 정비조합이 지난해 3월 건설사와 불필요한 용역계약을 체결해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입었다며 계약을 해지하자 6억3000만원 규모의 용역비 지급 및 정당한 이유없는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염주주공 정비조합도 A업체 등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착공이 지연되면서 이주비 대출이자 등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비조합측 주장과 관련, "A업체 등이 계약조건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건설사와 체결한 지장물 정비계약 등이 불필요한 행위라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업체 등이 전 조합장의 불법 행위

를 적극 지원해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는 조합측 주장도 증거가 없고 손해 항목으로 주장한 이주비 대출이자, 사무실 운영비 등이 A업체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지 여부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A업체 등이 소송을 제기한 시기에 용역계약은 묵시적으로 합의해지했다"고 판시했다. 또 "용역계약서에 비취하면 이미 진행된 용역 대가는 귀책사유로 인한 종료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기로 하는 게 당사자들 의사"라고 설명했다.

조합측은 이에 따라 A업체 등에게 실제 업무 수행 기간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용역대금의 5%를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양측은 1심 판단에 불복, 지난 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지음 기자 dok2000@kwangju.co.kr

## 윤장현 전 시장, 조주빈에 2차례 걸쳐 1000만원 줬다

### 공범 '부파' 강훈도 구속기소

성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4·구속기소)과 공범인 '부파' 강훈(18)이 6일 재판에 넘겨졌다. 윤장현(71) 전 광주시장은 재판장의 '비서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유리한 결과를 받게 해주겠다는 이들에게 속아 2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팀(수사)은 이날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11개 혐의로 강훈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미 재판 중인 조씨 사건에 병합을 요청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죄명은 ▲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 강제추행 ▲ 강

제추행 ▲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 강요 ▲ 협박 ▲ 사기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등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이다.

검찰은 강군이 텔레그램 '박사방' 개설 초기 '부파'라는 닉네임을 쓰며 성착취 영상물 제작을 요구하고, 조씨를 도와 박사방 관리·홍보와 성착취 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또 지난해 11-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장현(71)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해 재판장의 '비서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유리한 결과를 받게 해주겠다고 2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던 혐의도 있다. 경찰에서도 이와 관련된 혐의 일부를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

광주
전남
전북

---

## 200베드 이상 요양병원 매도·매수

---

광주 · 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 · 임대 · 급매 전문 / 경 · 공매 전문

---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